

‘대출 연장’ 한숨 돌린 학동 4구역 재개발

대주단, 지난해 사업비 PF 만기연장 불가 통보 “HUG 보증 받을 시 대출 한도 상향·만기 연장”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조합이 사업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환 만기에 따른 사업 자금 조달 불가능 위기에서 한숨을 돌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얻어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사업비 대출(최장 만기 5년 연장)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16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동구 남광교회에서 사업비 PF 상환 만기 대책 마련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가 열렸다.

조합은 오는 29일 대출 만기를 앞둔 사업비 PF 상환과 관련한 대주단

(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 3곳)과의 추가 대출 제안서 승낙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물었다.

대주단은 지난해 8월 조합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사업비 PF 상환 만기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당시 좌초 우려가 적어졌던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 자금 경색 등을 우려, 연장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과 현산은 2019년 5월 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 3곳으로 이뤄진 대주단과 사업·대출 약정서를 체결하

고 현재까지 사업비 1574억 원을 조달해왔다.

당초 조합은 2020년 광주시 전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후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조정지역 해제 등이 검토되면서 지난해 6월 일반분양에 대해 선분양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철거 건물 붕괴 참사 등으로 사업이 1년 여 넘게 연기되면서 첫 삽조차 뜨지 못해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사업비 PF 상환 만기일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당장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조합은 사업비 PF 상환 만기 연장을 위해 HUG로부터 보증을 받는 방법을 찾아 현산, 대주단과 추가 사업

비 규모와 만기 일정을 협의했다.

협의 결과 대출 규모는 2000억 원과 만기 연장 60개월로 정했다. 조합은 일반분양수입금과 조합원 부담금으로 이를 상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찬성을 묻는 총회 결과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면서 HUG 보증을 통한 대주단 대출이 결정됐다.

조합은 오는 20일 전후 HUG의 보증 심사를 마친 뒤 25일 대주단과 대출 협의서 작성을 완료, 사업비 수혈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7년부터 학동 633-3번지 일대 12만 6433㎡에 지하 3층, 지상 29층, 19개 동, 2314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다.

/권형안 기자

광주시, 설 명절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설 연휴 24시간 방역상황실 운영...축산농가 일제 소독

광주시는 설 연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설 연휴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설 연휴 전 방역 차량 7대를 동원,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을 일제 소독한다.

주요 나들목과 마을 입구에는 귀성객 축산농가 방문 자제 현수막을 설치한다. 가축방역관, 공수의사, 양돈·가금농장 전담관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수칙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관련,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일제 휴업(18일·25일)을 하고 명절 이후(25일·27일)에는 가금 농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일제 정밀검사를 할 예정이다.

남측읍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설을 맞아 가축전염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의 철저한 소독과 귀성객의 축산농가 방문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광주시, 새내기 소방공무원 63명 임명장 수여
새내기 소방공무원 63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기정 시장이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소방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광주시 제공

광주 유통노동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반대”

“노동자들의 의견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의무 휴업일 규제가 완화 또는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광주 지역 유통업계 노동자들이 규탄 행동에 나선다.

민주노동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가 다음달 2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행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는 영향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중 의무휴업을 명절 당일로 한시적 변경하는 사례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의무휴업일 지정) 시행 과정에서 다수의 지자체가 고시·광고와 의견수렴, 의견반영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의무 휴업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가 의무휴

업 평일 전환을 주도하고 대구시가 앞장서서 ‘전국 확대’를 꾀하는 현 상황에 대해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노조는 이 같은 입장을 오는 17일 오전 광주시청 앞 공개 기자회견에서 밝힌다. 영업 제한 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영업 허용 추진 등 의무휴업 제도 후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낸다.

정부는 대형마트 등이 영업 제한 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지자체 의무휴업일 평일지정 확대를 피하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난 2012년 도입됐다.

/권형안 기자

순천시, 설 연휴 공원묘지 추모공원 성묘 지원한다

순천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성묘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추모공원과 공원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공원묘지를 찾는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내 버스를 현행 8회에서 10회로 2회 증회해 운행한다.

또 매년 성묘객들로 교통체증이 심한 남교오거리~공원묘지~순천여고 구간은 설 당일(1월 22일) 일방통행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양방향 주차를 자제해야 한다.

설 당일인 22일에는 봉안당의 성묘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평상시보다 2시간 연장 운영하고, 화장·자연장 업무는 순천시민에 한해 정상 운영한다.

방문 성묘가 어려운 성묘객을 위해 시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지원하며, 안치신청 신청은 18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설부터 추모공원 및 공원묘지 내 조화(플라스틱 꽃) 반입 금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조화로 인한 화상 사고가 발생되면서 썩지 않고 방치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폐기물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조은의 기자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터 농장’ 2기 모집

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경영실습 지원...내달 3일까지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 2기 대상자 4명을 2월 3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은 영농창업에 꿈꾸는 청년들이 시설 투자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팜 경영실습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2년 간 884㎡ 규모의 연동형 온실에서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련의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또 사업기간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기초 이론교육부터 1대 1컨

설팅 등 연차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 청년농업인 등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관련 서류를 준비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qlcsk6795@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팀(062-613-5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일상 기자

“대법, 지만원 판결 계기...5·18 왜곡 사라지길”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6일 “5·18을 폄하한 지만원씨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계기로 5·18을 왜곡하고 있는 세력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5·18 시민군을 ‘북한군(빨갱이)’로 지칭한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5·18을 폄하하고, 지역 혐오를 부추긴 세력들을 정신 번쩍 들게 한 판결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그동안 5·18을 폄하한 자들은 고소·고발이 예상되면 5월 열사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반성하

는 척했고 광주시민들은 용서해 주는 것을 반복했던 터라 이번 판결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5·18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지역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정치인, 언론, 인터넷사이트 등도 깨끗이 없애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광주시 등은 이번 판결 이후에도 5·18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고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며 “교사들은 5·18 계기 교육을 통해 판결의 의미를 학생들에게도 알리고 교육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 래 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